

문화플러스

아리울 조합, 정읍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등에 음식 제공키로

친환경 아리울 협동조합(이하 아리울 조합)은 9일 판매장인 아리울 홍보관에서 정읍시 드림스타트 대상 가족 등에게 무항생제 삼겹살 등 점심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아리울조합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정읍시 드림스타트 50가구 200명과 애육원 60명에게 점심을 대접할 예정이다.

아리울조합은 “함께 외식하기 어렵거나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리울조합 장현기 조합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취약계층 소외감 해소와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연계 지원 발굴에 힘써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주민등록 특별조사 실시

김제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와 교육기관에서 요양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할 수 있다.

김제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 간부공무원

물놀이장소 집중 순찰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정읍 관내 물놀이장소 12곳에 폭염주의보(경보) 종료 시 까지 간부공무원의 집중 순찰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물놀이 관련 익사사고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고방지에 힘쓰라”는 이선재 소방안전본부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74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35명 가량이 물놀이를 즐기다가 사망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번제로 매일 현장에 직접 순찰을 나서는 간부공무원은 물놀이장소에 있는 구조장비를 점검한다. 또한 각종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정읍시에서 배치된 임시 안전요원에게 물놀이 안전지도를 당부한다.

김봉길 방호구조과장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로 매년 여름 피서객이 물리는 지역인 만큼, 소방서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회경험 미리 해볼 수 있어 뿌듯”

정읍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 애로·건의 사항 청취

정읍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시장 주제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7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8일부터 4주 동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보고 느낀 점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칠보물테마유원지와 정읍천,

내장산국민여가 캠퍼장 등지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하계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고 우리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감문을 발표한 최은지(전북대학교 4학년) 양은 “이번 경험에 사회를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했다.

이어 김민지(전주대학교 2학년)양은 학생은 “협장견학을 통해 정읍시가 첨단 방사선연구소 등 과학산업도시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도 효율적이고 실용성 높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방안을 강구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학생들은 경찰청에서 네이바랜드를 통해 공지 되는 미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지키기 등 주 활동과 장애인, 독거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 보호활동을 펼쳤다.

부안경찰서,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와의 환담

교통사고 예방 홍보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지난 5일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 학생과 함께 노약자(노인,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환담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경찰청에서 네이바랜드를 통해 공지 되는 미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지키기 등 주 활동과 장

래인 독거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 보호활동을 펼치며 미션 1차로 경찰서장 면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사고 통계 및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설명을 하고 노인들에 대한 약관조끼 배부 건의 등 교통질서에 대한 환담을 가졌다.

강현신 서장은 “특히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 학생들이 노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학기간 공부를

하면서 활동사항 자료준비에 창찬 격려를 하고 많은 홍보 활동으로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와의 환담은 청소년들이 국민에게 공감 받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개선을 활동하기 위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부안 관내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와 이루어 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예술회관 영화음악콘서트 공연

클나무필아모닉-피아니스트 진수경씨 함께 11일 오후

클나무필아모닉 오케스트라,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클나무필아모닉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영화음악콘서트 MUSIC IN CINEMA’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피아니스트 진수경씨와 함께 하는 공연으로 2016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뤄지며 입장료는 6000원으로 부안군민은 50% 할인된다.

공연은 클나무필아모닉 오케스트라 유수영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영화 속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캐리비안의 해적·스타워즈 등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영화의 주제곡을 연주

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을 통한 힐링을 목적으로 기획된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진수 경씨가 함께 한다.

클나무필아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3월 가칭 전북아트필아모닉 오케스트라로 시작해 2009년 4월 급난세 지휘로 창단연주를 하고 연간 17회 이상의 정기·기획공연 등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난 2014년부터는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로 활동 중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클나무필아모닉 오케스트라는 기존의 오케스트라 공연의 틀에서 벗어나 대중가수, 영화음악, 댄스팀과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부안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음악콘서트 팸플릿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경찰서,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4대 사회악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정읍을 지키기 위해 시내 주요상가 및 다중운집장소를 돌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정읍”이라는 슬로건으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과 일대일 대면 상담으로 4대 사회악 안전도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각 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개선을 할 예정이다. 김주원 서장은 “정읍시민이 4대 사회악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청정 정읍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태인도서관은 ‘정읍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맞아 다양한 독서행사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 지역내 초등생 대상

정읍시 도서관사업소 신태인 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신태인도서관은 ‘정읍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9월 한 달 간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3일과 10일에는 정읍을 상징하는 캐릭터 ‘난이팡이’를 클리어로 만들며, 4일과 11일에는 정읍의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 놀자·정읍역사’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4일과 25일에는 ‘함께 보는 정읍 역사신문 만들기’를 운영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신태인도서관 2층 교양교실에서 운영되며, 참여자(프로그램 당 20명) 모집은 8월 1일부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태인도서관은 “독서의 달 행사가 어린이들이 정읍을 알고 사랑하며, 도서관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onlib.jongup.go.kr> 또는 신태인도서관(☎539-644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양시 마을버스 뒤의 왼쪽 상단을 보면 지평선 축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다.

경기도 고양시, 지평선축제 홍보 협력

마을버스 40대에 축제 포스터 부착하고 시 곳곳 누벼

김제시 교원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를 축제홍보를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휴가지로 떠나는 직원들이 이동하는 홍보매이 되어 축제를 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 버스운송회사(대화교통) 마을버스에 김제지평선축제 포스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내면서 마을버스 40여대가 김제지평선축제 포스터를 부착하고 고양시 마을 곳곳을 누비게 되는 폐가를 얻기도 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휴가지 숙박시설·공공기관·다중집합장소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리플릿과 단단 수백장을 배포하였으며, 교원동과 연계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홍보안내문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기관에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강해남 사무장은 “축제가 단지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교원동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휴가중 축제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오프라인 홍보 뿐 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이러한 활동이 5년연속 대표축제가 되는 순환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상반기 치안성과평가

업무 유공자 8명 표창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8월 경찰서 2층 우소홀에서 2016년 상반기 치안성과평가 업무 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표창식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한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여성청소년과 김길환 경위를 비롯하여 해당 부서 별로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경찰관 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받은 김길환 경위는 “모든 직원

들이 똑같이 열심히 해주었는데 대표로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황대규 김제경찰서장은 많은 바 직무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김제경찰의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점인 만큼, 김제 시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